

(한중문화협회, 중국국제우호연락회, 인민일보사 공동주최, "한중양국간 민간차원의 우호증진을 위한 학술회의," 기조연설, 2009년 4월 23일, 중국 북경.)

## 한중 관계의 비전과 민간외교

윤영관 (서울대학교 교수, 전 외교통상부 장관)

2009년 4월 23일

오늘 한중문화협회와 중국국제우호연락회가 주최하는 이 같이 뜻 깊은 회의에 참석하여 말씀 전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초대해주신 한중문화협회 이영일 총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중국국제우호연락회 리자오싱 회장님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2003-04년도 제가 외교부장관으로 일할 때 중국 측 외교부장으로서 적극 협조해주셨고 한중 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해주셨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중 관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급속히 성장해왔습니다. 냉전이 종결된 직후의 새로운 세계정치 환경에서 양국은 과거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협력시대로 들어선 후 지난 17년간 크게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양적인 면에서 볼 때 1992년 50억 달러에 그치던 양국간 교역규모는 2008년에는 1,683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거의 인적 교류가 없던 냉전시대와는 달리 이제 연간 5-600만 명의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한국기업이 4만여 개, 우리 국민 75만 명이 진출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양국관계의 질적인 성장은 더욱 괄목할만합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한중 관계를 과거보다 한 단계 격상시켜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로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양국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양국은 그 동안 주로 경제 분야에 초점이 모아졌던 협력관계를 정치, 외교, 안보 분야로까지 확대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국 협력의 공간적 범위도 양자관계에서 지역 및 세계사회를 향한 협력으로까지 넓혀가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이제 이 같은 양국 관계의 양적, 질적인 발전을 기초로 양국이 당면하고 있는 21세기의 수많은 도전들을 함께 극복해나감으로써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들은 제각기 세계적 차원, 지역적 차원, 그리고 한반도 차원에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정치 차원에서 우리는 중대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지난 70여 년 기간 동안 최대라고 하는 경제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미국에서 먼저 출발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전 세계가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다른 위기들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이러한 위기가 초래할 국내 및 국제정치적 파장이 주목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 앞에는 침체된 세계경제를 어떻게 되살리느냐, 문제가 많은 기존의 국제금융질서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 등의 난제들이 가로놓여 있고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해나가는데 있어서 한중 양국의 협력은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는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를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입니다. 1930년대 경제공황은 보호주의를 강화시켰고, 이는 2차 세계대전이라는 파국을 초래했습니다. 경제위기와 전쟁이라는 파국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보호주의가 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악몽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강화시켜나가는데 양국은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것은 한국이나 중국과 같이 통상을 중요시하는 나라에게는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아시아의 지역적 차원에서 강화된 한중 관계가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은 적지 않습니다. 동아시아는 유럽과 달리 아직도 국가간 협력과 통합의 정도가 낮아서 상호간 불신의 장벽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는 각 국가들이 더 이상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더욱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안보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6자 회담의 의장국으로써 많은 공헌을 해왔습니다. 본인은 2003년 외교부장관 재임 시 미국의 파월장관, 중국의 리자오싱 장관 등과 함께 6자회담의 틀을 만드는데 기여할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이제 6자회담은 단순히 북핵 문제뿐 아니라 다른 현안 안보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다자협력메커니즘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6년여에 걸친 수많은 회담과정에서 한중 양국은 긴밀한 협력해왔고 이는 이러한 다자안보협력메커니즘의 정착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합니다.

한중 양국은 안보차원뿐만 아니라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도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다자협력을 이끌어내는데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들어 기후변화 등 환경악화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활동의 중심이 동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활동은 왕성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제활동이 친 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어떻게 상호 협력을 모색할 것이냐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로 양자차원에서 진행되어온 협력논의를 이제는 동아시아 다자차원으로 확대시켜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하고 한중 양국이 그 방향으로 더욱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반도 차원으로 초점을 좁혀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북한은 그 동안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 국제정세의 불안과 긴장을 초래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을 비핵화 하는 것은 한중 양국의 국익에 부합하며 동북아 안정뿐만 아니라 핵 비확산(NPT)체제 강화를 통한 세계 평화 증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그 동안 한중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왔습니다.

한국의 국민들과 세계사회는 북한당국이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인 결단을 내리고 경제회생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과감히 취해나가면서 국제사회의 규범을 받아들이는 시점이 하루 빨리 다가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중 양국의 긴밀한 공조가 한층 더 강화되기를 희망합니다.

한중 양국은 또한 경제 협력도 강화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자원과 내수시장 규모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21세기에 생존하는 길은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한국은 개방경제를 지향하고 세계 각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향할 목표는 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부강한 나라인 유럽의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동남아, 미국, 유럽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거나 협상이 진행중이고 중국과도 머지않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봅니다.

이제까지 긴밀한 한중 관계가 어떻게 세계적 차원, 지역적 차원, 한반도 차원에서 제기되는 도전들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언급한 외에도 수많은 이슈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전들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한중 관계가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중 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교류가 심화되고 상호간에 이해가 증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집을 짓는데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국 국민들 간의 관계가 깊고 돈독하지 못하면 양국정부간 공식적인 관계도 원활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에서 언급한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나가는 것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민간외교입니다. 양국 국민들 상호간의 이해와 소통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깊게 하는 민간주도의 외교가 민간외교라고 한다면 그러한 민간외교의 한 가운데 한중문화협회나 중국국제우호연락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중 양국의 전문가들은 양국관계를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장애물로 상호불신과 오해, 민족주의 문제, 문화 역사분쟁의 문제 등을 꼽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들을 극복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찾아내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양국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양국 언론의 보도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한중문화협회와 중국국제우호연락회가 주최하는 오늘의 회의에서 이러한 방안들과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중 관계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지혜를 모아주시으로써 금번의 회의가 대단히 생산적인 뜻 깊은 회의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축하의 뜻을 담아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